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상처없이 영광있다 (마르-45)

교황청 '안락사 · 조력자살은 살인 행위'

교황청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톨릭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하는 조직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 22일 공개한 서한 '착한 사마리아인' (Samaritanus bonus)을 통해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살인 행위' 로 규정하며 어떤 상황 또는 환경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한 가톨릭 신자는 '병자성사' 를 비롯한 마지막 예식을 받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병자성사는 가톨릭의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로 병자나 죽을 위협에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이다.

이날 발표된 서한은 지난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와 표현을 담았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10월 16일 은혜한인교회

'2020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 가 오는 10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대회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지난 17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은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 라고 기도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기도모임을 갖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며 "금번 대회는 다양한 민족이 마음을 모으는 기도대회가 될 것이다. 뜻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자." 고 말했다.

대회준비위원회는 조직과 실행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타인종 지도자들, 미국 국가 기도의 날 본부 책임자들과 기도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에게는 세상이 슬프게 보이고 기쁜 사람에게는 기쁘게 보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는 슬프고 애절하며 한이 많은 곡들이었습니다. 문화도 예술도 다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뒤에도 끊임 없이 열강의 세력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유배생활에서 엄청난 고난을 체험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바라봤던 하느님은 고난받는 하느님이었습니다. 백성 자신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상도 역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이사야서의 '아훼의 종' 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은 웬일인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반역죄로 몰려서 죄없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매우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운명론자라면 전생에 죄가 많았거나 팔자가 사나운 탓이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짓궂게도 사정없이 때리고 찌르는 아픔과 슬픔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애정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봐도 그렇고 순교자들이나 성인들



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창피한 현실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난 뒤에 돌아보면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은 대개 조금 늦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쇠는 불 속에서 더욱 강하게 단련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때리고 찢어서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아픔은 감수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를 염치없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높

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 형제들에게 요구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봉사하는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잠을 적게 자고 또 적게 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밑으로 내려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 불평과 비난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비난과 욕설이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미움이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도 불행해질 뿐입니다.

꼴찌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크게 상하게 되는 아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 아들의 고난과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을 주시려 하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잔을 용기있게 마시도록 합시다. 그것의 모습은 고난의 잔을 닦아있지만 그 속에 든 것은 바로 은혜라는 이름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강길웅 신부-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